

조정식 국회의장-제주도-지역 국회의원 제주현안 소통 간담회

항공 좌석·농수산물 운송 지원 등 이슈

위 지사 “섬이라는 구조적 문제·입법 현안 관심 부탁”
조 의장 “제주4·3 해결 등 국회가 든든히 뒷받침할 것”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도민 생활 현안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처리를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제주도청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제주도정 핵심전략과 주요 입법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와 국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등 유족 의견이 반영된 우선처리 과제가 최우선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반복되는 도민들의 항공기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을 도민의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민 항공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책

과 재정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을 요청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추가 운송비 지원을 위한 개정안 처리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추진하는 민선 9기 도정의 핵심전략을 공유하며 소득·노동·의료·주거·교통·문화·돌봄 등 7대 기본서비스를 중심으로 도민 삶의 기

본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인공지능 전환(AI)’을 토대로 ‘인공지능(AI) 미래기획 자치도’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와 탄소시장·기후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2035 탄소중립과 기후소득 창출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제주 그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4대 과학기술원-제주 연합캠퍼스 조성 등을 제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기본사회와 인공지능 행정, 기후경제도시를 향한 제주의 도전이 공공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국회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고 4·3의 해결이 후퇴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는 섬이라는 이유로 더 높은 물가와 택배비·운송비, 항공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도민의 이동권 보장 등 주요 입법 현안 해결과 섬 지역의 구조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5일 제주현안 소통 간담회를 가진 조정식 국회의장과 위성곤 제주지사 및 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 수돗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불검출’

도내 17개 정수장 등 대상

도내 17개 정수장 수돗물과 4개 해수담수화시설 유입 원수를 대상으로

로 올해 3분기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항목에서 불검출 판정이 나왔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

부에 따르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도내 17개 정수장 수돗물을 대상으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 등 감마핵종 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는 4개 해수담수화시설로 유입되는 원수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를 추가했다. 2024년부터는 검사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려 방사성 물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오소범기자

“제주-칭다오 항로, 중국과 일본 거래 화물도 흡수하자”... 2면 / 떨어지던 국내선 유류할증료 9월 인상... 5면

기상청, 올 7월 제주도 기후특성 분석

역대급 폭염... 강수량은 ‘뚝’

평년기온 27.4℃ 역대 4위
폭염일수는 6.5일 역대 1위
열대야 일수도 21.5일로 2위
한달 강수량 116.1mm 기록
평년의 절반 수준 그쳐

지난 7월 제주지방은 마른 장마로 인해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강수량은 평년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7월 제주도 기후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 평균기온은 27.4℃로 역대 4위를 기록했다. 평년(25.5℃)보다 1.9℃ 높았으나,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 7월(27.9℃)보다는 0.5℃ 낮았다. 10~13일에는 도내 4개 지점 모두에서 최저기온이 평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위 10%에 드는 이상고온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달 제주도 폭염일수(일 최고 33℃ 이상인 날의 수)는 6.5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지점별로는 제주 15일, 서귀포 7일, 성산 3일, 고산 1일 순이었으며 하

순에는 네 지점 모두 폭염이 발생했다.

특히 서귀포 지역에서는 7월 25~31일 7일간 폭염이 지속돼 7월 폭염지속일수 역대 1위를 기록했다. 기존 7월 폭염일수 최다는 2017년 5.8일이었다.

지난달 제주도 열대야 일수는 평년(9.3일) 대비 약 2배인 21.5일로, 역대 2번째로 많았다. 지점별로는 제주 25일, 서귀포 24일, 고산 21일, 성산 16일 순이었다.

제주 지점에서는 7~31일 25일간 열대야가 지속돼 7월 열대야지속일수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7월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 22.5일이며 열대야 지속일수는 2013년 20일이었다.

지난달 제주도 강수량은 116.1mm로 평년(231.3mm) 대비 50% 수준에 그쳤다.

강수일수도 6.8일로 평년(12.4일)보다 5.6일 적었다. 7월 내린 비 대부분 상순(115.9mm)에 내렸고, 중순부터 점차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다.

위영식기자

지난 4일 오후 7시 최대전력수요 역대 최고

1186.3MW...2년만 기록 경신

제주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4일 오후 7시 제주지역 최대전력수요가 1186.3MW를 기록, 동·하계를 통틀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5일 밝혔다. 종전 최대전력수요는 2024년 8월 5일 오후 2시에 기록한 1178.6MW였다.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당시 공급예비력은 433.6MW, 예비율은

36.6%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대전력수요 기록이 다시 경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지난 6월말부터 이상고온과 제주~육지 간 연계선과 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바다의 무한한 가치

해양환경공단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KOEM 해양환경공단